

“그때에 목자들이 베들레헴으로 서둘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운 아기를 찾아냈다. 목자들은 아기를 보고 나서, 그 아기에 관하여 들은 말을 알려 주었다. 마리아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곰곰이 되새겼다.” (루카 2,16-19)



(목자들의 경배), 무리요(Bartolomé Esteban Murillo), 프라도 미술관, 마드리드, 스페인

[제1독서] 민수 6,22-27

[제2독서] 갈라티아 4,4-7

[화답송] 시편 67(66),2-3.5.6과 8
(◎ 2ㄱ)

[복음 환호송]

◎ 하느님은 자비를 베푸시고 저희에게 복을 내리소서.

◎ 알렐루야.



 하느님은 자-비-를 베푸시고 저희에게 복-을 내리소-시

○ 하느님이 예전에는 예언자들을 통하여 조상들에게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이 마지막 때에는 아드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네. ◎

- 하느님은 자비를 베푸시고 저희에게 복을 내리소서. 당신 얼굴을 저희에게 비추소서. 당신의 길을 세상이 알고, 당신의 구원을 만민이 알게 하소서. ◎
- 당신이 민족들을 올바르게 심판하시고, 세상의 겨레들을 이끄시니, 겨레들이 기뻐하고 환호하리이다. ◎
- 하느님, 민족들이 당신을 찬송하게 하소서. 모든 민족들이 당신을 찬송하게 하소서. 하느님은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세상 끝 모든 곳이 그분을 경외하리라. ◎

[복음] 루카 2,16-21

[성가 안내]

- 입당성가: [237] 주 예수 어머니
- 봉헌성가: [44] 평화를 주옵소서 [212] 너그러이 받으소서
- 성체성가: [165] 주의 잔치 [180] 주님의 작은 그릇
- 파견성가: [249] 지극히 거룩한 동정녀

목자들은 마리아와 요셉과 아기를 찾아냈다.
여드레 뒤 그 아기는 이름을 예수라고 하였다.

그때에 목자들이 베들레헴으로

¹⁶ 서둘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운 아기를 찾아냈다.

¹⁷ 목자들은 아기를 보고 나서, 그 아기에 관하여 들은 말을 알려 주었다.

¹⁸ 그것을 들은 이들은 모두 목자들이 자기들에게 전한 말에 놀라워하였다.

¹⁹ 그러나 마리아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곰곰이 되새겼다.

²⁰ 목자들은 천사가 자기들에게 말한 대로 듣고 본 모든 것에 대하여 하느님을 찬양하고 찬미하며 돌아갔다.

²¹ 여드레가 차서 아기에게 할례를 베풀게 되자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였다. 그것은 아기가 잉태되기 전에 천사가 일러 준 이름이었다.

¹⁶ So they hurried away and found Mary and Joseph, and the baby lying in the manger.

¹⁷ When they saw the child they repeated what they had been told about him,

¹⁸ and everyone who heard it was astonished at what the shepherds said to them.

¹⁹ As for Mary, she treasured all these things and pondered them in her heart.

²⁰ And the shepherds went back glorifying and praising God for all they had heard and seen, just as they had been told.

²¹ When the eighth day came and the child was to be circumcised, they gave him the name Jesus, the name the angel had given him before his conception.

묵상

“평화를 빕니다, 행복을 빕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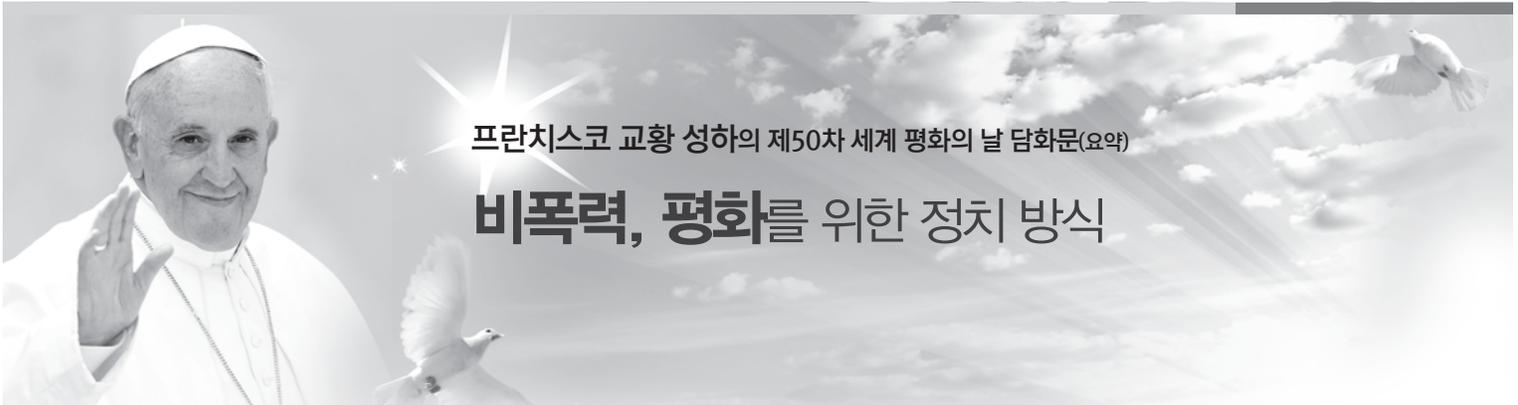
목자들은 구유에 누워 계신 아기 예수님을 보고 하느님을 찬미하였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생명의 탄생,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경축하였습니다. 성모님께서서는 목동들의 이야기와 축하를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셨습니다. 아기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변화를 마음속에 새기셨습니다. 새해 첫날 우리는 하느님의 어머니와 함께 머물면서 우리 안에 시작되는 새로운 시간과 변화를 느끼고 있습니다.

신앙인으로서 진정한 행복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머물고자 하시며 우리에게 커다란 사랑과 희망을 주고 계심을 알고 깨닫는 것입니다. 성모님에게서 태어난 하느님의 아드님 안에서 우리는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행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뜻을 따르는 ‘종’이지만, 하느님의 나라와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행복, 사랑과 희망을 우리 마음 안에 잘 간직하여야 하겠습니다.

행복의 다른 이름은 평화입니다. 우리가 이웃에게 “행복을 빕니다.” 하고 말하는 것과 “평화를 빕니다.” 하고 기원하는 것은 같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진정한 행복과 평화는 하느님에게서 오지만 고난과 시련의 과정을 견디어야 합니다. 성모님의 삶은 행복과 평화가 충만한 삶이었지만 아드님의 가시밭길을 함께 가신 삶이었습니다.

(류한영 베드로 신부)



프란치스코 교황 성하의 제50차 세계 평화의 날 담화문(요약)

비폭력, 평화를 위한 정치 방식

새해를 맞이하여 세상의 모든 민족들과 나라들, 국가와 정부의 수반들, 종교와 사회와 공동체의 지도자들에게 평화를 빕니다. 이번 담화에서 저는 인간관계, 사회관계, 국제 관계에서 사랑과 비폭력을 따르도록 요청합니다. 우리는 두 번의 세계 대전으로 초토화되었고 핵전쟁의 위협과 다양한 분쟁들을 겪었으며, 끔찍한 산발적 세계 대전에 휘말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폭력은 엄청난 고통을 야기합니다. 이 폭력은 복수와 파괴적인 분쟁의 악순환이며 일부의 군벌들만 이득을 얻습니다. 그리고 폭력은 우리의 깨어진 세상을 치유할 수 없습니다.

폭력에 폭력으로 맞서면 강제 이주와 커다란 고통만이 야기되며, 많은 자원이 군사적으로 이용되어 사람들은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박탈당합니다. 또한 최악의 경우 많은 사람들을 육체적 정신적 죽음으로 몰아넣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폭력의 시대에 사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서는 환대하시고 용서하시는 하느님의 사랑을 선포하시며 제자들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베드로에게 칼을 거두라고 말씀하시며 비폭력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에 이르기까지 비폭력의 길을 가셨으며, 십자가로 평화를 이룩하시고 적개심을 허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쁜 소식을 받아들이는 이는 누구나 자신 안에 있는 폭력을 깨닫고 하느님 자비로 치유받게 됩니다. 비폭력이 굴복, 불관, 수동적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단호하고 일관되게 실천한 비폭력은 놀라운 결과를 낳습니다. 마하트마 간디와 마틴 루터 킹 2세의 업적은 잊히지 않을 것입니다. 라이베리아의 리마 보위와 수많은 여성들은 비폭력의 선도자입니다.

먼저 가정이 비폭력의 길을 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더 나아가 사랑의 기쁨이 가정에서 세상으로 흘러들어 사회 전체를 비추고 책임과 존중과 참된 대화를 바탕으로 군비 축소와 핵무기의 금지와 폐기가 이뤄져야 합니다.

2016년 11월에 폐막된 자비의 희년은 우리의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고 하느님 자비를 그 마음 안으로 받아들이라는

초대였습니다. 이 희년으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사회단체들이 무관심한 대접을 받고 불의에 희생되고 폭력을 당하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들도 우리의 가족입니다. 이들도 우리의 형제자매입니다. 그러므로 비폭력 정치는 가정 안에서 시작되어 온 인류 가정으로 퍼져 나가야 합니다.

교회는 국제기구의 활동에 함께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차원의 입법 활동에 효과적으로 기여하며 그러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몸소 산상 설교에서 이러한 평화 건설의

전략 지침을 주십니다. 행복 선언은(마태 5,3-10 참조) 우리가 행복하고 선하며 참된 이라고 묘사할 수 있는 사람의 모습을 요약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온유한 사람들, 자비로운 사람들,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 의로움에 주리고 목마른 사람들은 행복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가톨릭 교회가 적극적 창의적 비폭력을 통한 평화 건설의 노력에 함께할 것을 보증합니다. 2017년 1월 1일부터 온전한 인간 발전 촉진을 위한 교황청 부서가 활동을 시작할 것입니다. 이 부서는 교회가 훨씬 더 효과적인 방법으로 “정의, 평화, 창조 보전이라는 헤아릴 수 없는 보화”를 증진시키고 “이민, 궁핍한 이들, 아픈 이들, 배척된 이들, 사회적으로 차별된 이들, 무력 분쟁과 자연 재해의 희생자들, 감옥에 갇힌 이들, 실업자들, 모든 형태의 노예살이와 고문의 희생자들”에게 관심을 기울이는 데에 도움을 주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취지의 모든 활동은 비록 작은 것이라도 폭력 없는 세상의 건설에 기여할 것이며 이는 정의와 평화를 향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2017년에는 기도와 활동으로 마음과 말과 행위에서 폭력을 몰아내는 사람이 되어 공동의 집을 돌보는 비폭력적 공동체의 건설에 노력을 기울입니다.

바티칸에서
프란치스코

마음과 말과 행위에서 폭력을 몰아내는
사람이 되어 비폭력적 공동체 건설에
노력을 기울입니다!

아름다운 안식

이집트로의 피신 중 휴식

아기 예수의 탄생을 경배하기 위해 동방박사는 별을 따라 베들레헴을 방문하며, 온 세상은 메시아의 오심과 선포로 희망으로 가득 찬다. 동방 박사들은 귀향 길을 묻기 위해 헤로데 왕을 방문하며, 유다의 새로운 구세주의 출현 소식을 전한다. 왕권의 위협을 직감한 왕은 사내 영아 학살령을 내리고, 아버지 요셉은 꿈에 이집트로 피신하라는 주님의 천사가 내린 지시를 충실히 이행하며 성 가족은 요행히 비극의 칼날을 피한다. 험난하고 고된 여정 중 잠시의 휴식을 가장 아름답고 평화로운 장면으로 묘사한 내셔널 갤러리의 <이집트의 피신 중 휴식 The Rest on the Flight into Egypt>은 네덜란드의 제라르 다비드(Gerard David, 1460-1523)의 명작이다. 관람객은 참사를 피하는 긴박하고 고단한 피신 앞에서 아이러니하게도 평온한 안식을 얻는다.



제라르 다비드, <이집트로의 피신 중 휴식>, 패널에 유채화 41.9 x 42.2 cm, 1510

성 가족의 이집트로 향한 피난은 기독교 도상학의 주요 주제로 푸른 색조의 전체 화면은 우아하고 침착한 분위기를 조성하며, 이국적인 플랑드르 풍경을 배경으로 도입하여 동화적인 분위기를 연출한다. 멀리 원경은 당대 사실적인 실제 경치로 16세기 풍경화의 태동과 전개 그리고 발전 과정에 깊은 영향을 주며 풍경화가 독립된 장르로 자리매김하는 주요한 모티브가 된다. 인물 뒤로 펼쳐지는 밝음과 어둠이 교체되는 지그재그의 화면 구도와 단조로운 색상을 농도 조절과 톤의 변화로 창조한 다채로운 색상은 노련한 화가의 능력이다. 피난길의 암울하고 막연한, 성 가족의 인물이 중심인 화면은 독보적인 배경으로 풍경화로 변형되며 동시에 성서 텍스트의 종교적 주제는 서정적 화면으로 전환되며 미술사의 획기적인 변천을 가져온다. 관람객은 풍경을 등지고 막대기를 들고 가족의 허기를 달래 줄 플랑드르 밤을 따는 중경의 요셉과 전면에 부각된 모자로 성 가족을 확인한다.

다비드는 표면적으로 목가적인 분위기 속 평범한 가족의 일상을 그렸지만 화면 곳곳에 성서 내러티브와 플랑드르 회화의 진수인 숨겨진 기독교 상징(hidden symbolism)을 세심하게 분포하였다. 그는 피신 중임을 암시하는 여행길의 동반자 나귀와 마리아 발치에 놓인 바구니를 전경에 부각시켰다. 성 모자의 머리에서 흘러나오는 섬세한 금빛 후광, 마리아의 푸른 색과 붉은 색의 상징적 색상의 의상, 아기예수가 움켜 쥔 두 손의 포도는 피의 성찬식과 포도주로 전통적 기독교 도상의 핵심 요소이다. 화면 하단 성모자의 발 앞의 양치식물과 엉덩퀴는 겸손의 미덕과 그리스도의 수난을 상징하며 바닥에 넓게 분포된 세 잎 클로버는

삼위일체의 상징으로 마치 식물도감처럼 철저한 사실주의에 근거해 그려냈다. 관람객은 아기를 감싼 얇고 투명한 옷, 청명한 하늘, 온화한 땅의 질감과 풍광을 세밀하고 정교하게 묘사한 서정적인 그림에서 북유럽 르네상스의 대가 안반 아이크의 혁신적 전통을 확인한다.

성가족의 이집트 피신은 복음서의 간단한 언급과는 다르게 초대 교회와 중세 신학자, 야고보 외경, 아라비아 경전, 황금전설 등에서 보다 전설적이고 자세하게 기록되었다. 마태오 복음서는 구약의 가장 모범적이고 훌륭한 인물 모세를 그리스도와 동일시하며 그리스도의 신비 자체를 전형으로 실현시켜 이 장면을 서술한다. 이집트로의 피신은 인간의 몸으로 육화(Incarnation)된 그리스도의 첫 번째 수난으로, 고난을 극복하고 이교도를 물리친 그리스도는 이스라엘로 돌아와 인류를 구원하는 메시아로 표명한다.

아기 예수의 탄생으로 도래하는 하느님의 나라는 주님의 말씀에 무한한 신뢰를 보이는 아버지 요셉과 광배 대신 플랑드르 풍의 두건을 두른 세속적인 어머니 마리아의 순명으로 완성된다. 관람객은 아기 예수의 탄생으로 시작되는 인류의 창조적 질서를 위한 고난의 장면을 함께한다. 그리고 희망을 버리지 않고 주님을 기다리는 겸손한 자세와 영원한 삶과 구원에 대한 절대적 믿음을 확인한다.

CCD-CYO News

CYO 2016 Winter Retreat



CYO held its Winter Retreat this past weekend. It was an event to remember and quite an experience. Students learned a lot and made new friends. Overall, it was a great ending to the year and a wonderful bonding experience for CYO.



CCD-CYO News

Altar servers' Christmas Party

It is time to celebrate the season! The Altar servers' annual Christmas Party was held on December 24th after the Christmas Eve Mass. The servers and their families celebrated the night with foods and goodies.



The Solemnity of Mary, Mother of God

Feast date : January 1



성모자 상 | 최봉자 수녀 작

The feast is a celebration of Mary's motherhood of Jesus. The title "**Mother of God**" is a western derivation from the Greek Theotokos, which means "**God-bearer**".

On this day, we are reminded of the role that the Blessed Virgin played in the plan of our salvation. Through the Holy Spirit, God the Father prepared Mary to be the place where His Son and His Spirit could dwell among men. Christ's birth was made possible by Mary's fiat, or sanctioning of God's plan with her words, "Be it done to me

according to thy word".

Calling Mary "**Mother of God**" is the highest honor we can give to her. Just as Christmas honors Jesus as the "**Prince of Peace**", the Solemnity of Mary, Mother of God, honors Mary as the "**Queen of Peace**". New Year's Day is also designated as the "World Day of Peace", further acknowledging the role of Mary in our hearts and in our world.

Prayer

Feast of Mary, Mother of God

*God our Father,
may we always profit by the prayers
of the Virgin Mother Mary,
for you bring us life and salvation
through Jesus Christ her Son who
lives and reigns with you and the
Holy Spirit, one God,
for ever and ever.*

Amen.



가정과 기도

“요셉은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갔다...
나자렛이라고 하는 고을로 가서 자리를 잡았다.” (마태 2,21-23)

성탄축제의 기쁨을 누리고 있는 교회는 가정성화주간이 시작되는 오늘, 나자렛의 성가정을 묵상하도록 우리를 초대합니다. 오늘 복음에서 요셉은 천사를 통해 하느님의 뜻을 전달받고 그대로 따릅니다. 그는 천사가 일러준 대로 아기 예수님과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내려가 살다가, 헤로데가 죽은 후 다시 천사의 말을 따라 이스라엘로 돌아와 나자렛에서 지냈습니다. 요셉은 마리아의 남편이요 예수님의 아버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으로, 예수님과 마리아를 위한 거처를 손수 마련하였습니다. 그는 하느님의 계획을 실현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던 것입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오늘날에도 우리 가정을 위협하는 온갖 위험으로부터 가정을 수호하도록 그리스도인 부모와 그 가정을 부르십니다. 그런데 이 부르심에 응답하는 데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요청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가정의 가장인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가정 안에 예수님을 위한 거처를 마련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정 안에 머무실 때, 비로소 우리도 그분의 현존 안에 머물면서 그분과 대화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분주한 일상생활에서 잠시 물러나 주님 안에 머물면서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 말씀은 우리의 모든 일을 비추어주고 유지시켜주며 마침내 영원한 생명을 줍니다.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현존하시도록 해줍니다. 단 두세 사람이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언제나 그분도 함께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현존 안에 머물며 그분께 헌신하는 가정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신비에 참여하면서 혼인생활을 통해 그 거룩함에 도달합니다. 왜냐하면 가정이 겪는 고통과 위기에서 십자가의 주님을 체험하는 가운데, 죽음을 뛰어넘는 그분의 능력에 힘입어 온갖 어려움을 극복해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기도는 겸손에서 우리나라는 희망의 행위입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하느님의 절대적인 도움을 인정하는 일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해 하느님께 의지하는 것은, 자신이 가난한 자임을 겸손하게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때문에 우리의 원의와 희망은 기도 속에서 더 깊어지고 더 강렬해집니다.

우리는 가정 안에서 기도를 배웁니다. 기도하는 부부는 기도하는 가정을 만들고, 그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기도를 배우게 됩니다. 부모는 자녀들과 함께 기도함으로써 그들 마음을 이해할 수 있으며, 그들의 생애에서 가장 아름다운 인상을 남겨줍니다.

가족이 함께 모여 기도할 때, 그 가정은 주님 안에 머물습니다. 기도하는 가족은 하느님을 알게 되고 신앙인으로 성장하게 되며, 더 큰 가정인 교회 구성원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기도 안에서 사랑과 용서를 배우며, 배려와 개방의 자세를 익힙니다. 그래서 자신의 바람과 원의에 머물지 않고, 다른 사람을 향해 자신의 시간과 삶을 기꺼이 나누게 됩니다. 이렇게 기도는 인간의 내적 진실의 첫째가는 표현이요, 진정한 자유를 위한 첫째 조건입니다. 그리스도인 가정이 기도에 충실하면 할수록 예수 그리스도와 더욱 일치하게 되며, 교회생활과 사명에 참여하게 됩니다.

물론 그리스도인 부모는 자녀에게 기도를 가르치고, 또 하느님의 신비를 발견하도록 인도할 책임이 있습니다. 가정에서부터 하느님과 이웃을 향한 사랑을 배우고, 하느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법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하느님의 뜻에 개방된 자세를 가지도록 하고, 그분의 선물과 부르심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특히 부모의 구체적인 모범과 생생한 증거는, 자녀에게 기도를 가르치는 데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고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의 공동체적 여정은 주일 성찬례에 함께 참여하는 가운데 그 정점에 도달합니다. 가정기도는 성체성사를 통해 더욱 활기를 얻습니다. 성체가 바로 그리스도인 혼인의 원천이기 때문입니다.

올해 가정성화주간을 보내면서 모든 그리스도교 가정이 아기 예수님을 위한 거처를 마련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 머무르시도록 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가정은 생명력이 넘치고, 가족이 함께 모여 기도할 때 미래는 신앙의 빛으로 찬란하게 열립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또 그분의 자비로운 사랑을 체험할 수 있기를 나자렛 성가정을 통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2016년 12월 30일 예수 마리아 요셉의 성가정 축일에
주교회의 가정사목위원회 위원장 조환길 대주교



12월 30일 예수, 마리아, 요셉의 성가정 축일 (가정 성화 주간)

‘예수, 마리아, 요셉의 성가정 축일’은 나자렛의 성가정을 기억하며 이를 본받으려 하는 축일이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2001년부터 해마다 ‘예수, 마리아, 요셉의 성가정 축일’부터 한 주간을 ‘가정 성화 주간’으로 지내고 있다.

1 구역임원 교육

• 일시 : 1월 8일(일) 오전 11:30(B-1,2)

2 단체장 회의

• 일시 : 1월 8일(일) 오전 11:30(B-3,4)

3 꼬미시움 월례회의

• 일시 : 1월 8일(일) 오후 1시(B-3,4)

4 성모회 임원회의

• 일시 : 1월 8일(일) 오후 1시(A-3)

5 병자영성체

• 일정 : 1월 6일(금)
• 신청 : 조영인 형제 (703)264-0050

6 복사단 학생 모집

• 대상 : 첫영성체 받은 초등학교 4학년- 6학년
• 신청 : 사무실
• 문의 : 권웅우 스테파노 (571) 244-0333

7 저금통 봉헌

• 대립 시기 동안 나누어드린 저금통을 다음 주일인 주님 공현 대축일(1월 8일)에 봉헌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정성은 불우이웃 돕기에 쓰여집니다.

8 2017년 교무금 카드

• 2017년 교무금 카드는 세금 공제 납부서와 함께 우편으로 각 가정으로 발송될 예정이오니 당분간 카드없이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9 2017년 March for Life(생명 수호 행진)

• 인간 생명을 존중하고 보호하기 위해 매년 실시되는 행사로써 2017년에는 1월 27일(금) 내셔널 몰에서 U.S. Supreme Court 까지 행진을 실시합니다. 행진에 참여하실 분들은 미사 후 친교실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일시 : 1월 27일(금)
• 참석인원 : 선착순 55명
• 참가 신청 : 1월 1일부터 4주간 동안 접수를 받습니다.
• 문의 : 조정근 형제(703)978-4005

10 청소년 성지 순례(Italy - Vatican)

• 일시 : 2017년 7월 10일 - 7월 21일까지(11박 12일)
• 비용 : \$ 2,900(Deposit : \$ 1,000)
• 신청 마감 : 2017년 2월 26일
• 접수 : Peter Han (703)626-3832 (703)425-9445

새해를 맞이하며 바치는 기도

○ 시작이요 마침이신 주 예수님,
지난 한해 동안 베풀어주신 은혜에 감사하나이다.

● 저희가 지은 죄를 모두 용서하시고
더욱 큰 은혜를 베풀어주시어
새해에는 나쁜 습관을 버리고
맡은 책임을 다하여
가정과 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게 하소서.

○ 또한 저희 생각과 말과 행위를 주님께 바치오니
하느님의 영광과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도록 도와주소서.

◎ 아멘.

☆ 감사합니다 ☆

성탄을 준비하며 성당 현관 앞 구유를 제작한 로고스, 구유를 만드신 김기일 형제님과 천주의 성모 레지오팀, 대친교를 준비해 준 성모회와, 아름다운 미사를 준비해준 전례부, 제대회, 성가대, 복사단, 핸드벨팀, 재무부, 문화부, K of C 그리고 모든 신자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금주의 행사

날짜	축일	행사 및 내용 (시간 및 장소)
1월 1일(일)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 미사, 청소년 사도회 (오후 1시), 주일학교 수업 없음
2일(월)	성 대 바실리오와 나지안조의 성 그레고리오 주교 학자 기념일	아침 미사 (6:00, 성당)
3일(화)	주님 공현 전 화요일	레지오 마리아에 (오후 8시, 친교실), 성령 기도회 (오후 8시, 도서관)
4일(수)	주님 공현 전 수요일	레지오 마리아에 (오전 9:30, 친교실), 평일 미사 (오전 11시)
5일(목)	주님 공현 전 목요일	아침 미사 (6:00, 성당)
6일(금)	주님 공현 전 금요일	병자 영성체, 평일 미사 (오후 7:30), 회장단 회의 (오후 8시)
7일(토)	주님 공현 전 토요일	아침 미사 (7:00, 성당), 레지오 마리아에 (9:30, 친교실), 파티마 사도직 셀 모임 (오후 3시, B-4), 첫 토요일 성모 신심 (오후 6:15)
8일(일)	주님 공현 대축일	구역임원 교육 (11:30, B-1,2), 단체장 회의 (11:30, B-3,4), 꼬미시움 (오후 1시, B-3,4), 주일학교 교사회 (오후 1시), 재속프란치스코 모임 (11:30-오후 4시, A-3)

KACM TV 하이라이트 Cox Ch.30, 830 Fios Ch. 30

1월 1일 (일) 자정 12:00-1:00,
1월 5일 (목) 오후 5:00-6:00,
1월 6일 (금) 저녁 11:00-12:00

- **개국 특집 "예, 여기 있습니다!"** : 예비신학생부터 사제품을 받기까지, 그 인고와 영광의 시간들을 들여다본다
- **드라마 "따로, 또 같이"** : 신대의 딸을 둔 신자 가정. 그곳에서 일어나는 갈등과 하느님 사랑

방송 시간 변경 안내

2017년 1월부터 하상방송은 일요일 자정, 목요일 오후 5시, 금요일 저녁 11시에 한 시간씩 보내드립니다. 명칭은 KACM (Korean-American Catholic Media)로 바뀝니다. 채널은 변동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시청해 주시고 관심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교황님의 1월 기도지향

그리스도인의 일치

모든 그리스도인이 주님의 가르침에 충실하여 기도와 형제애로 교회의 온전한 친교를 다시 이루도록 노력하고 인류 앞에 놓인 도전에 함께 맞서도록 기도합니다.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2016년 12월 25일 (예수 성탄 대축일)

주일헌금	\$ 13,854.00
교무금	\$ 23,385.20
교무금(신용카드)	\$ 18,290.00
특별헌금	\$ 0.00
2차 헌금	\$ 0.00
구유예물	\$ 15,361.00
합계	\$ 70,890.20

♥ 주일헌금 및 2차 헌금의 세금공제를 원하시는 분은 세금공제 확인용 봉헌예물 봉투를 사용해 주십시오.

기도해주세요

♥ 병중에 계신분

고성균(스테파노), 김경화, 은규희(발바라), Thomas Byrne, 홍종범(시몬), 한중분(루시아), 정맹금(데레사), 김영식(요셉), 박상연(라파엘), 정중희(발바라), 김만복(아네스), Dan Cho, 전원후(마리아), 김태명(시몬), 신순영, 박제중(요셉), 김용구(베네딕), 송영호(요한), 김영자(세레나), 이천우(베다), 이창덕(비오), 김영식(베드로), 양소자(루시아), 이숙(소후 데레사), 박영철(베드로), 백유미(세실리아)

♥ 군복무자

강로린(루피나), 김도유(유지니오), 김동진(마태오), 신동우(미카엘), 안성호(요한), 구분민(론지노), 이술(루시아), 이재윤(안토니오 파도바), 임현석(아비도), 손범기(펠릭스), 윤벽참(프란치스코), 장동건(스테파노), 장동호(다니엘), 주기환(필립), 최홍집(엔토니), 심용천(요한), 장동길(피터), 전성호(세례자 요한), 최홍성(프란치스코), 고미셀(미카엘라), 에스더 정(세레나), 신재훈(대건안드레아), 정수지(요안나), 권범수(요한), 임철민(요셉), 김승겸(안드레아), 김성우(비오)

※ 기도를 원하시는 분은 사무실에 신청해 주십시오.

RE/MAX Gateway 부동산 www.Rachael Kim.com 레이첼 김(아네스) 703-652-5790 Cell. 703-774-8945	정재민 치과 센터빌스퀘어(Centreville Square) 정재민(미카엘) DMD, PC 703-825-1191	Pohanka Acura New / Used Cars Yong Kim (미카엘) 847-867-1730 Cell. 571-445-0788	허진 변호사 Law Office Jason Huh 민사, 형사, 소송재판 전문 허진(세바스찬) 703-288-1515	엘리사벳 백화점 화장품, 건강식품, 이불, 옷, 신발 마루 깔아드림(무료견적) 배 엘리사벳 703-508-7743
마이키즈 소아/청소년과 mykidspediatricians.com 정소연(크리스티나) 703-865-5437	영스 헬스케어 간병사, 간호사, 물리치료 서비스 김경해 (아네스) 703-647-0292	김돈현 가정의학전문의 Fairfax Family Medicine Center Michael D. Kim, MD 703-591-4100	주택용자, 채용자 EverBank 안윤민 (바실리오) 571-275-0691	문스 자동차 정비 VA 인스펙션 오일체인지, 각종 자동차정비 이병일 (다니엘) 703-266-1983
안아픈 세상(양방/한방) 교통사고보험 인정 병원 척추신경과, 치료맞사지과 한병나라 이혁찬 한의원 703-658-5100	시티 종합 보험 자동차, 주택, 비즈니스, 생명 김수연 (엘리사벳) 703-352-1073	Lee's Heating & Air 히팅 & 에어컨 이일우 (베드로) 703-675-8009	소아전문치과 Pediatric Dental Care Dr. John Han (한장엽) Fairfax 703-383-3434 Springfield 703-992-7100	보험/은퇴연금 이경태 요셉 생명보험, 은퇴연금 학자금, 장기 간호 보험 갖고 있는 플랜 점검 가능 703-785-4494
시원 냉난방 에어컨, 히팅, 플러밍 703-362-7770	민기호 내과 John Min M.D. 703-462-8711	Euromotor Cars Mercedes-Benz 유스티노 한 703-855-8710	스카이 학원 전 학년 전문 SAT, 영어, 수학 가을학기 등록 중, 조기등록 혜택 김영란 (아네스) 703-867-1144	재노 오 부동산 Keller Williams Realty 재노 오 (로사) 703-772-7275
한미 소독 가정집, 상점 (STORE) 하홍엽 (요한) 703-451-3322	케어피플 & 호스피스 간병사, 방문간호, 물리치료 이선애 (엘리사벳) (O) 571-297-4747 (C) 240-413-0365	척추사랑 교통사고/척추신경/손, 발 통증 병원 Dr. 이형운 (마르코) 센터빌, 챌릴리 703-429-4622 락빌 MD 301-231-7588	McLean Psychiatric Services 정신과 치료와 상담 Richard Kim, M.D. 703-336-2406	신디 리 부동산 텔리 전문 사업체 이루시아 703-338-0008
하얀나무치과 www.whitetreedental.com 박경욱 (크리스) D.D.S. 703-726-8804	F teck connection, LLC POS(cash register), CCTV, Network, Bank Card Services 마르티노 손 540-429-1399	와니 건축 In & Out 핸드맨 Service 부엌, 화장실, 텍 권태완 (빈센트) 571-331-6811	마태오 흥 종합보험 메디케어, 오바마케어 703-969-8956 (마태오) 703-969-8954 (소피아)	골프 레슨 성인레슨 및 월포인트 가능 초보, 학생, 여성 골퍼 환영 레지나 678-800-3451
정수정 부동산 Keller Williams Realty 정수정 (안나) 703-855-8575	그레이스 홈 케어 노인/중증 환자/산모 케어/ 물리치료 전문 간호 식, 박사 운영중 대표 김아네스, RN 703-865-7370	영스 히팅 에어컨, 히팅 703-728-3160	찬들리 HYUNDAI 김경태(바오로) 571-314-3467	CORE 물리치료 통증, 재활치료 전문 (메디케어) 김우기(안드레아), DPT 703-865-6455
Penta Olympic Fencing Club 펜싱 클럽 이영찬(베드로) 703-207-1059 Cell.703-801-3924	ASSA 종합보험 최클라라 오바마 건강보험 카이저 메디케어 도와드립니다 703-649-2110	5분 도정 증석 도정미 판매(당일 도정) 현미, 5분도미, 백미 www.JCProvision2016.com 703-366-3286	임경옥 부동산 Gangnam Realty & Management Group, LLC 703-944-1337	Sola Salon 조지 메이슨 앞 유니버시티몰 내 Studio #5 남자 헤어 컷 : \$10 703-868-9427
윤 조셉 변호사 www.yoonfirm.com 교통법, DUI/DWI, 형법, 개인상해 재판전문 변호사 703-260-6060	에스터'S 키친 케이터링 전문 www.estherkitchen.com 최은숙 (에스터) 571-215-3232	영스 노인 복지센터 오전/오후반, 차량운행, 2식사 및 간식제공, 질 높은 다양한 클래스, 주정부 보조 및 저렴한 개인 비용 703-988-2044	Landscape 정원 관리, 나무 자르기 하상욱(요한) 703-609-1011	민 자동차 정비 703-869-9691

성사 · 교리 · 하상학교 안내

성사안내
 · 고해성사 : 미사시작 30분전
 · 병자영성체 : 매주 첫 금요일
 · 유아세례 : 짝수 달 넷째 주일 (주보공지)
 · 혼인성사 : 6개월전 신청 (교육 필수)
 · 병자성사 : 위급하기전 연락 요망

예비자 교리(교리 기간 8개월)
 · 주일 : 11시 40 분 (하상관)
 · 화요일 : 오후 8 시 (하상관)
 예비자나 전입자 또는 방문자는
 성당 입구 봉사센터 또는
 사무실에서 등록을 받습니다.

하상한국학교 (Hasang Korean School)
 · 정규학기 : 일반 Public School 과 동일, 매주 토요일
 · 여름학기 : 매년 6월에 개강
하상성인학교 (Hasang Adult School)
 · 불학기, 가을학기 운영 / 매주 화, 금
하상 한국학교 / 성인학교 연락처
 · (703) 968-3070

미사시간 (MASS SCHEDULE)

주일미사	· 08:00 AM · 10:00 AM · 11:40 AM (학생 / 영어미사) · 03:00 PM (우드브릿지 한국어미사) St. Elizabeth Ann Seton Catholic Church · 05:00 PM (청년미사)
토요일 저녁	07:30 PM
주일학교 수업	주일 10:00 AM
월 & 목	06:00 AM 화 & 금 07:30 PM
수요일	11:00 AM 토요일 07:00 AM



천주교 성 정 바오로 성당
ST. PAUL CHUNG CATHOLIC CHURCH
 Catholic Diocese of Arlington, Virginia

4712 Rippling Pond Dr., Fairfax, VA 22033
 Tel (703)968-3010 | Fax (703)968-3013
 Home Page : www.stpaulchung.org
 E-Mail : sthasang@gmail.com

PARISH STAFF 주임신부 백인현 (안드레아) | 보좌신부 성원경 (대건 안드레아) | 사도회장 이용현 (요셉)